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 창조

발행일 2011년 3월 7일 (월)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전시관 소식 | 2쪽 |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43) 지질시대표는 지구의 역사? - 이재만               | 3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22) 요셉이 총리가 되다 - 이종현 역 | 5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8)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와 적용 - 김무현 저        | 8쪽  |
|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26)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 10쪽 |

## 인사말



나라 안팎에서 재난과 갈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불안에 떨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할 때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되지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는 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김 영 철 올림 -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공개세미나(매월 첫째 목요일)가 있습니다. 이 공개세미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가지는 가운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공개세미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 길소희 간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

일시: 2011년 4월 7일(목) 오후 7시

장소: 대구전시관

내용: 공룡화석지로의 여행

문의: ☎ 070-4095-6420



## 대구전시관 오시는 길

070-4095-6420  
대구전시관(수도빌딩 2층)

남부경찰서

123노인요양  
복지센터

1호선 영대병원역  
1번출구

현충로역

명덕시장 네거리

영대병원 네거리

대구 남구 대명5동 207-1번지  
수도빌딩 2층 (705-802)

## 2.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소식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에서는 지난 2월 10일(목) 오후 7시에 공개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신동수 전시관장님(계명대학교 화학공학 명예교수)께서 “창세기 1장 및 생명, 그 완벽한 디자인”이란 제목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능력을 동물과 식물을 예를 들어 나눠주셨습니다.



2월 23일(수)엔 성서중부교회 초등부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실험카페 1차시 수업(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이 최송화 선생님의 의해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주장해 주시는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 지질시대표는

## 지구의 역사?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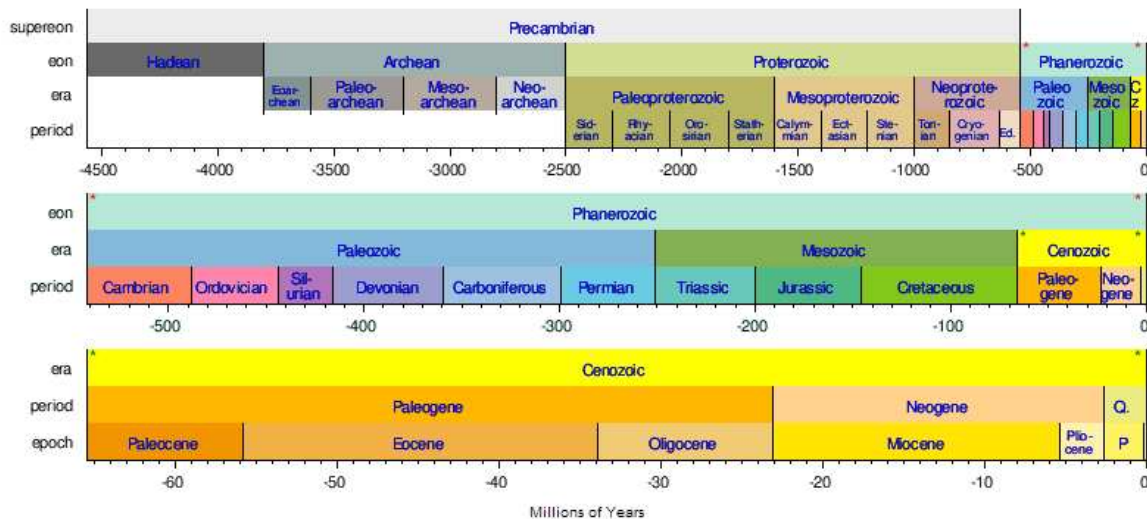
*Everything on dry land that had the breath of life in its nostrils died. - Genesis 7:22, NASB*

진화론적 지질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불리는 “지질시대”이다.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역사라고 하면 여지없이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지질시대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을 이들 지질시대를 수십 층으로 세밀히 나누었으나, 실제로 그림에서 보듯 지구상에 모든 층을 수직으로 보여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질시대는 화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문제는 지질시대표와 같이 화석이 단순한 무척추동물에서 고등한 척추동물까지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교과서에 들어있는 과학의 이례적인 그림이다.

실제로 화석들의 분포 양상을 보면 그림처럼 수직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수평적이다. 화석들은 지표의 퇴적암 속에 “널려있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당하다. 수평적으로 분포하는 화석들을 진화의 순서에 꿰어 맞춰 수직적으로 과학책에 꾸며놓은 놓은 것이다. 강연 중에 가끔씩 “정말로 공룡이 사람과 동시대에 살았었는가?”라고 놀란 듯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문자가 지질시대가 지구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 화석 가운데 전이화석(어떠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발견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구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하는 수백억의 화석에서 쉽게 관찰되어야만 함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 화석들이 분포하는 것은 수직적이 아니라 지표에 널려있듯이 다분히 수평적이다. 그리고 화석이 만들어 지는 것은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이 열리는 노아홍수와 같은 대격변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공룡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석들은 지구전체에 있었던 대격변 당시에 동시에 만들어졌어야 한다. 또한 이는 화석들이 살아있을 당시 모두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노아홍수가 왜 중요한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바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지지하고 있는 지질시대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지질시대의 역사는 없다. 오직 노아홍수만이 존재할 뿐이다. 지질시대의 긴 역사가 단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노아홍수의 지질학적 이해는 진화론의 중추를 부수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다.**



### 오랜연대설에 기초한 지질시대표(Geological Timelines)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Geologic\\_time\\_scale](http://en.wikipedia.org/wiki/Geologic_time_scale)>

이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아주 중요하다. “창세기 1장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인가?” “인류의 기원은?” “생물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은?” 등의 문제는 실제로 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제한되어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디자인의 개념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 전체에 걸쳐 일어났던 노아홍수는 “사건”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원에 관한 부분에 비해 과학적 접근 가능한 더 많은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아홍수에 대한 확신은 더 소급해 올라가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에 대한 성경적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of all that was on the dry land, all in whose nostrils was the breath of the spirit of life, died.* -NIV)”(창 7:22)하는 장면 속에 진화론적 지질시대를 마음에서 제거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노아홍수뿐 아니라 이전의 성경 기록들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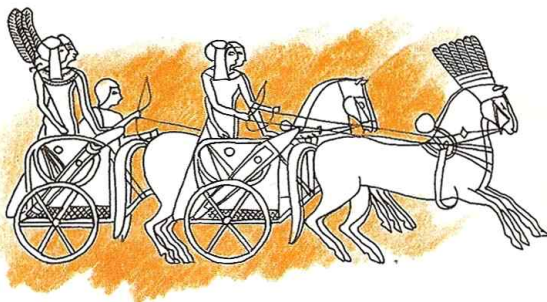
출처: <http://www.hisark.com> **창조**



# 요셉이 총리가 되다

## (Joseph Becomes Governor - Genesis chapter 41)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판 후에, 그는 이집트로 팔려 와서, 보디발 집의 집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아내가 요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연고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파라오의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들이 곧 이상한 꿈들을 해석해 주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복직되었는데,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에게 요셉에 대해 말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그의 꿈의 의미를 말했을 때, 파라오는 그를 온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가장 큰 임무가 앞에 놓여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기근에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었다. 요셉은 땅을 정비하고 곡물을 모으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파라오에게 부여받은 요셉의 권위의 상징 중의 하나는 그의 훌륭한 수레이다. 여기 보인 고대 이집트의 수레는 고대의 무덤 벽화를 그린 것이다.

### 성경에 등장하는 꿈들

고대에 있어서 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써,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이용하여 어떤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시거나, 혹은 다가오는 시련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 꿈을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던 사람들은 왕국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직접 대화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야콥은 하란으로 가는 긴 여행 중 어느 날 밤에 휴식을 위해 멈췄을 때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창 28:12). 이 꿈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창 4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해석은 맞았고, 이것은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또 다시 하나님은 요셉이 파라오에게 그의 꿈의 의미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게 하셨다.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창 41:1-45).

수년 후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군대로 몰래 들어가서, 어떤 군인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들의 전체 군대가 기드온 사람들에게 패배 당한다는 꿈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의 용기를 새롭게 했다(삿 7:13-15).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는 자기 왕국 안에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줄 사람을 찾았다.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는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바로 아래의 통치자로 승진했다(단 2). 나중에 다니엘은 네 날개와, 네 짐승과, 큰 바다에 관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단 7).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하나님은 꿈에서 요셉에게, 헤롯의 분노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경고하셨다(마 2:13). 또한 요셉은 헤롯이 죽은 후에 꿈속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마 2:19-20).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아내는 충격적인 꿈을 꾸고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간청하게 되었다(마 27:19).

## 인장 반지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기의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을 때,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인장 반지를 넘겨준다는 것은 막강한 권위가 파라오에게서 요셉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바로 다음 가는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다.

인장 반지는 문서에 싸인 할 때도 사용되었다. 인장 반지를 점토 혹은 왁스에 대고 누르는 것은 오늘날 싸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장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반지에는 서로 다른 마크 혹은 심볼이 새겨져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인장 반지로써, 아마도 파라오가 요셉에게 준 것과 매우 유사할 것이다. 거기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주목하라. 진흙에 대고 누르면 서명이 된다.

## 이집트의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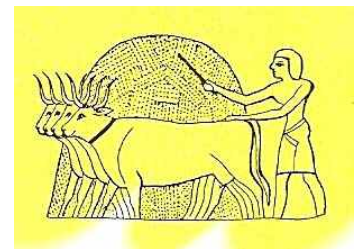


이집트 곡물창고의 모형

이집트에 커다란 기근이 오기 전에 7년의 풍작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총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곡물로 거둬들였다.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극심한 기근 동안 사람들을 지탱해 주기에 충분한 곡물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곡물은 창고 혹은 곡물창고에 저장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창 41:49). 대부분의 곡물창고는 별집 모양의 돔을 지닌 건물이었었는데,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곡물은 위로부터 각 방으로 부었고, 바닥 근처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빼내었다.

## 곡물 - 심기와 추수

이스라엘에서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농부는 두 번의 우기에 의존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농부는 나일강에 의존했다. 9월, 10월, 11월 동안에 나일강이 독을 넘었고, 강물은 그 주변의 땅에 범람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비옥한 실트질 층이 남았다.



타작마당에서 곡물 밟기

이 새로운 흙이 아직 젖어있을 때, 농부는 빨리 불품없는 나무 쟁기를 소가 끌도록 하여 자기 땅을 쟁기질했다. 그러나 많은 농부들은 그들의 힘든 노역을 시킬 동물이 없어서, 쟁기를 그들 스스로 끌어야만 했다.

쟁기질과 쟁이질이 끝나고 나면, 농부는 씨를 뿌리거나 심는다. 그는 들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그 비옥한 땅 위에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린다. 돼지나 양이나 혹은 다른 동물이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밟아준다. 그리고는 농부는 3월이나 4월의 추수기까지 기다린다. 곡물 줄기를 자르고 그것들을 다발로 묶는 일은 남자 혹은 여자 추수꾼에게 맡겨진다. 이들 밀, 보리, 혹은 옥수수의 다발 혹은 뭉치는 타작마당으로 보내져서, 그 줄기 위로 소나 당나귀들을 터벅터벅 걷게 하여 곡물을 분리시킨다.

다음으로 곡물을 까부르거나 체로 치고, 기다란 나무 갈퀴를 가지고 바람에 날린다. 더 무거운 곡물은 땅에 떨어지고, 왕겨는 바람에 날라간다. 이 과정을 키질이라고 부른다. 체는 먼지나 모래의 무거운 조각을 제거하고, 바람은 가볍고 쓸데없는 왕겨를 날려버린다. 이제 곡물은 창고에 보관할 준비가 되었으며, 빵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기다린다. 관리가 와서 일부 곡물은 사제들의 식량을 위해 사원 곡물창고로 보낼 것과, 일부 곡물은 왕의 음식을 위해 왕궁의 곡물창고로 보낼 것을 확인한다. **참조**

## 성경적 세계관의 종합적 의미

### 1) 성경적 세계관의 종합적 의미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그리고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녀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청지기 적인 소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곧 학문, 과학, 예술,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가정, 문화 등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주신 진리대로 가치나 윤리체계를 세워 나가며, 창조주이신 그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 벌써 구원받고 승리한 자들이지만(요한복음 5:24), 한편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말미에 고백한 사도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상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성화(sanctification)를 향하여 나아가할 자들입니다(고린도후서 5:15,2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 2 Corinthians 5:15, NIV*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 2 Corinthians 5:21, NASB*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금의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삶은 과연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직 성경만이 실질적이며 이성적으로도 타당한 대답을 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주/생명의 질서와 도덕적 기준에 대한 참 이해를 가져다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삶과 사상과 피조세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바른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러한 실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교회의 실패는 성경의 진리를 모든 윤리와 피조세계의 질서를 설명해 주는 종합적인 삶의 체계 및 세계관으로 정립시키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과 문화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by Charles Colson, 'How now shall we live?')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masterpiece)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 Ephesians 2:10, NASB*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긴 걸작품입니다. 생산품은 외모와 품질과 성능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성도들은 모두 외모나 직위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걸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 걸작품은 예수님 안에서 선하고 의미있는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에서만 머물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목적과 방식대로 사는 이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즉, 신분과 신앙은 구속받은 자이면서, 삶의 자세와 방식은 여전히 구속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타락으로 치닫는 이 세상과,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로마서 1:14).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고후 5:20)이며 편지(고후 3:3)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그 얼마나 멋진 직책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가서는 온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학문과 예술과 교육과 삶의 전 영역이 성경적으로 회복되도록,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3)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 그랜드캐니언의 동식물 (Grand Canyon - The Plants and Animals)

까마귀(ravens)는 멋진 새입니다. 종종 ‘새 세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까마귀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꾸러기입니다. 그것들은 짝을 지은 후 자신의 영역에서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나누며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 삽니다. 어린 것들은 자라고 배우는 동안 부모의 영역을 같이 씁니다. 수컷은 먹이를 제공하고 가족을 돌보는 한편, 암컷은 내조자가 됩니다. 역경이나 위협의 시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컷과 암컷이 하나의 팀으로 일합니다.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따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큰뿔양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특히 고지대에서 수원(water sources)이 풍부하지 않은 여름 동안에 강가에 자주 모입니다. 커다란 양(ram, 수컷)은 키가 약 1.7미터(5.5피트)에 달하는 한편 암컷(ewe)은 약 30센티미터(1피트)가 작습니다. 숫양은 혼자 살거나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한편, 암양은 6마리에서 20마리의 떼를 이루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숫양은 암양의 무리에 대한 짝짓기 권리를 위해 ‘싸운’ 다음 자신의 무리를 공격적으로 방어합니다. 암컷은 초봄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고 그것들은 2년이나 그 이상 무리와 함께 머뭍니다.

숫양의 육중한 뿔이 다 자라는 데는 약 7년이 걸리나 그 끝이 주변의 시야를 막기 시작하면 바위에 의도적으로 문질러서 없애버립니다. 암컷의 뿔은 덜 굵은 데다 짧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 시편 40:2, 개역개정**

갈색의 사막 환경을 해매는 하얀 사막큰뿔양(desert bighorn sheep)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 갈색 양도 흰색 양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명백히 이것은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복제실수입니다. 복제과정(reproductive process)에서 이 양에게 ‘정상적인’ 위장복-큰뿔양이 바위 사이에서 거의 사라지도록 해주는 것-을 발현하는 정보를 제공했어야만 하는 무언가가 없어졌거나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자연적인 포식동물이 있는 실제 자연환경에서, 이 양은 첫해를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에 흠이 있게 된 것은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이 있는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공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눈 덮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번에는 더 잘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전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변화는 다 ‘진화’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나 같은 종류 내에서의 그와 같은 적응적 변화는 항상 정보의 증가가 아니라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분자에서 사람으로의 진화는 깃털을 만들어서 날 수 있게 되는 도마뱀에 대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돌연변이가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서 보는 생물학적 변화가 이러한 과정의 작은 부분이라면, 유전정보의 증가에 대한 많은 예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는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25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 화석기록, 혹은 실험실 등 어디에서도 정보적으로 ‘증가하는’ 어떠한 유전적 변화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양으로 남겨져 있는 양이며, 때때로 부모보다 정보가 적은 여전히 양 일뿐인 양을 봅니다.

강 가장자리를 따라 그리고 주변의 하천 위를 재빨리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가장 눈부신 형태의 곤충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것들의 놀라운 비행술입니다. 그것은 다른 80만 종류의 곤충들과는 완전히 다른 비행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흉부에 있는 근육에 의해 비행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수축되면 날개가 위로 당기고 이완되면 아래로 내려잡니다. 대조적으로, 잠자리는 근육이 건(tendon)에 의해 날개 이음매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참으로 유일한 곡예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설계는 현대 헬리콥터의 전구(forerunner)입니다. 헬리콥터 설계의 선구자인 사이콜스키(Igor Sikorsky)는 헬리콥터의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자리를 관찰함으로써 얻었습니다.

잠자리의 다리는 걷는 것 대신 잡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비행 중에 벌릴 수 있어서 공기 중의 먹이를 잡기 위해서 ‘캐처(catcher)’를 형성합니다. 두부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눈은 최대 30,000개의 육면으로 된(six-sided) 개별적 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내면서, 각각 기록되어 있는 초당 최대 200개의 순차적으로 빠르게 터지는 빛을 통해서 ‘봅니다.’

잠자리의 다른 많은 독특한 설계특징들과 더불어 이러한 것들은 창조주의 발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창조주의 작업장으로부터 왔으므로 잠자리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설계에 놀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http://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mailto: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